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 LG엔솔, '종합 최고 혁신상' 수상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시상식에서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의 Pure NCM은 고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한 미드 니켈 소재를 발굴하고 적용한 노트북 배터리로 단결정 양극 소재를 사용하여 고전압 환경에서 전극의 장기 내구성을 확보한 기술이 높게 평가됐다. /차현정 기자



BNK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 발전기금 전달

BNK부산은행은 지난 4일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정원 BNK부산은행 동부·울산영업본부장(오른쪽부터), 손대진 BNK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원현공항, 교육협력 확대 MOU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원현공항 교육원에서 원현공항과 '교育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요스트 람머스 원현공항 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전기협회,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팔 걷어

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한국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 협회와 '산업단지에너지저소비·고효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 이사(왼쪽부터),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민동욱 글로벌 선도기업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스티븐 해링턴: 스테이 멜로' 기획전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첫 전시로 현대미술 기획전 '스티븐 해링턴: 스테이 멜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스티븐 해링턴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스티븐 해링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풍경과 문화를 표현한 작품과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는 8일 작가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선보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韓 콘텐츠 이끄는 이미경...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

〈CJ그룹 부회장〉

기생충·브로커 등 다양한 작품 총괄 미 매거진 '할리우드 이슈' 선정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비저너리(visenary) 미래를 읽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선정됐다.

CJ그룹은 이 부회장이 미국 유력 연예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의 특별판 '2024 할리우드 이슈(2024 Hollywood Issue)'에 이름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베니티 페어는 1995년부터 할리우드 배우, 감독 등 매년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뽑아 이들을 조명하는 연례 특집호 '할리우드 이슈'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 30주년을 맞는 이번 특집호는 할리우드의 미래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선정했다. NBC유니버설 스튜디오 회장 도나



'베니티 페어' 특별판 '2024 할리우드 이슈' 이미경 부회장 화보 /Vanity Fair

랭글리(Donna Langley),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와셔맨 회장 케이시 와셔맨(Casey Wasserman) 등 업계 거물 기업가들을 비롯해 전 바하마 대사이자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 배우자로 유명한 프로듀서 니콜 애반트(Nicole Avant),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위원장 프란 드레셔(Fran Drescher),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2회 수상자 배우 제인 폰다(Jane Fonda) 등이 이 부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베니티 페어는 이 부회장을 '대모(godmother)'라 칭하며 "이 부회장은 '기생충'부터 '설국열차'까지 할리우드를 강타한 한류의 비밀 병기다. 더 풍요롭고 다양한 세상을 위해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 부회장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른 셀린 송 감독의 아름다운 영화 '페스트라이브즈'의 총괄프로듀서로서 역할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

총', '헤어질 결심', '브로커', '페스트 라이브즈' 등 다양한 작품의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리우드,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과 협력하며,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 국제 애미상 공로상,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러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유력 매체가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도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LG, 슈리칭 '구겐하임 어워드' 선정... "예술·기술 만남 지원"

〈넷아트 전문가〉

10만달러 상금·트로피 수여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



을 펼쳤으며, 특히 VR과 코딩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인터넷 기술이 태동한 1990년대에 '넷 아트' 분야에서 특히 이름이 높다. 디지털 사회와 사회적 문제를 대담하게 다룬 일찌감치 블록체인 등 미래 사회를 예견하기도 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이 대표작 8점을 소장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국제 심사단 5명을 구성하고 전세계에서 추천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심사해 슈리칭을 최종 선정했다. 특정한 형

식에 얹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호평하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슈리칭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나오미 베이커(Naomi Beckwith)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대표해 "현대미술계 선구자인 슈리칭은 디지털과 아날

로그의 경계를 아우르는 탐구를 이어왔다"며 "LG와 함께 슈리칭의 활동을 후원하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LG 브랜드담당 박설희 수석전문위원은 "실험적인 예술로 동시대인들에게 대담한 질문을 제시해온 슈리칭이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 심사단이 주목한 선구자 정신과 부단한 실험정신이 LG가 이상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전했다.

한편 LG는 내달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SBI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개소

증권·자산운용사 등 협업 모색

SBI저축은행이 여의도와 강남 지점을 확장했다.

SBI저축은행은 여의도 금융센터와 강남 금융센터를 개점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여의도지점과 강남지점을 금융센터로 확장했다. 확장 기념행사에는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센터 두 곳을 통해 ▲개인 ▲기업 ▲IB 금융 등 지역 거점의 여신 영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상품을 개발해 기존 수신 위주의 영업 활동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여의도의 특성을 이용해 인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사와 협업을 단행 계획이다. 이어 강남에서는 개인 및 기업 관련 여신상품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 세번째부터),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타니구치 SBI저축은행부시장 및 관계자들이 SBI저축은행 금융센터 개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도전하세요"

내달 9일까지 온라인 참가 접수

한화그룹이 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다.

한화그룹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과학 꿈나무 육성 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Science Challenge) 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한화 사이언스챌린지는 창의적인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화그

룹이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과학 아이디어 경진 대회이다.

올해의 슬로건은 'Saving the Earth :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아이디어'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룬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내달 9일까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를 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부음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정병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조용민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발작물개발과장 정지웅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김운기씨 별세, 김태호(경기신문 광주·하남 담당 부장)씨 부친상 = 4일, 가평농협장례문화센터 4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31-581-4444